

기초과학연구와 우수인재 양성 위해 2천836억원 투입

과학기술부는 그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과학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보다 6.2% 늘어난 2천836억 원 규모의 기초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월 13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초과학 연구사업은 개인·소규모 연구지원사업에 1천41억 원, 우수연구집단사업과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에 각각 1천185억 원, 572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권역별 지방 우수 이공계 대학 3~4개를 법인형태의 연합체로 묶어 가칭 '지역대학연합사업단'을 형성, 지역의 중추적 과학기술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세대 성장동력과 지역특화분야를 연계한 연구중심의 지역대학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 중 1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하고 세계 핵융합 연구개발의중심사업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 공동개발사업에도 17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 시행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과 정보제공·상담을 전담할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인터넷 청년 봉사단 출범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정보기술(IT) 발전이 뒤쳐진 나라 주민에게 인터넷 교육 등 봉사활동을 펼칠 제4기 해외 인터넷 청년 봉사단이 출범했다.

정보통신부는 1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172명의 봉사단원과 변재일 정보통신부 차관, 스리랑카·코스타리카·불가리아 등 파견국 주한 외교사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교수·대학생·일반인 등 43개 팀 172명으로 짜여진 이번 봉사단은 1월부터 2월까지 아시아·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아프리카 등 세계 26개 나라에 파견돼 팀별로 약 30일 동안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파견 지역은 ▲인도·베트남·네팔 등 아시아 지역 13개 나



라 26개 팀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지역 5개국 7개 팀 ▲코스타리카·벨리즈 등 중남미 3개국에 3개 팀 ▲알제리·카메룬 등 아프리카 3개국에 3개 팀 ▲루마니아·불가리아 등 중부유럽 2개국 4개 팀 등이다. 이들은 그곳에서 공무원·학생·일반 주민, 현지거주 한인 등에게 컴퓨터·인터넷 사용법과 홈페이지 제작법 등을 가르치고,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치게 된다.

(문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660-2661)

과학기술전공자 채용목표제 도입

- 과기·산자·정통부 장관 및 경제5단체장간 간담회서 -

올해 하반기부터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일정규모의 과학기술 전공자를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기업들은 정부가 권고하는 일정수의 과학기술 전공자를 채용하면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또 이르면 내년에 주요 이공계 대학원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품목·기술별로 5개 전공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함께 경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민관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술혁신 지원 정책방향을 밝혔다.

과기·산자·정통부가 이날 밝힌 기술혁신 정책방향에 따라



청년무역인, 수출시장 개척활동의 첨병으로 활용

-연수인원 대폭 확대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

한국무역협회(대표 김재철)에서는 진취적이고 번처정신을 갖춘 청년인력을 전문무역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정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03.12월말 현재까지 총 287명의 무역전문가를 양성하였다.

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갖추게 된 수료학생의 경우 취업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볼 때 이 사업이 2004년에는 대폭 확대되어 전문인력의 양성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사업과 Trade Incubator사업의 유기적인 발전을위해 우수 T참여 학생을 선발, 해당학생으로 하여금 소속 T사업단의 해외지사 역할도 담당하게 할 계획으로 있다. 연수생들은 2개월간 국내에서 무역실무강의 및 현장실습을 거친 뒤, 6개월 동안 해외에 파견, 연수시킬 예정이다.

해외파견 실무수습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해외지사에서 현지시장분석, 바이어상담, 세일즈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 6000-5365)

면 정부는 종전 기업의 수요에 따라 과학기술 전공자의 채용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사전에 채용목표를 정해 기업들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해당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전공자 채용목표제'를 신설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3천여 명의 채용을 지원키로 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과기부도 올해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270명 고용지원에 65억 원을 투입, 기업당 1~2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석사급 연 2천200만 원, 박사급 2천800만 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3개 부처는 지난해 확정한 10대 신성장동력의 연구개발(R&D)에 과기부가 3천320억 원, 산자부와 정통부가 각각 4천220억 원, 2천534억 원 등 모두 1조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 연구인력 1만 명을 양성키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다학제 전공의 핵심 공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원에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온칩(SoC),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바이오 등 5개 과정을 신설, 1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은 업무가 중복되는 3개부처산하단체의 통폐합을 건의했다.

국가 R&D 주무부처인 과기·산자·정통부 장관이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국가 기술혁신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국회서 예산 삭감, 과학기술TV 설립작업 난항

국민의 과학기술 생활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과학기술TV 설립작업이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구성된 과학기술TV설립추진위원회는 올 하반기 시험방송, 연말이나 내년초 본방송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예산 40억을 삭감하여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TV 설립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돼 관련 콘텐츠 확보 등 과학기술TV 설립작업이 어려워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에서 가용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과학기술인들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야말로 빨리 과학기술 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리_이재성 기자 jslee@kofst.or.kr